

## 제 1 강 고백하기 전에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은 따름이다.



# 기독교, 신자 그리고 제자의 길

##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한문덕 목사  
2014년 상반기

### I. 들어가며

제목을 “기독교, 신자 그리고 제자의 길”이라고 달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를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자”, “제자” 각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지요. 물론 어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기독교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생성된 종교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 세계의 여러 종교들 중 하나이지요. 종교에는 그 종교가 숭앙하는 교주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자(信者) -믿는 사람들- 라고 부르지요. 여기서 기독교 신자란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동의하고, 기독교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며, 기독교 교리를 지키고, 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하여 성서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등종교와 고등종교를 나누는 것은 요즘 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종교의 가르침은 매우 도덕적이며, 인간의 도리를 말해주고, 인류가 따를만한 진리를 선포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서 또한 진리의 말씀이고 인류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서에 따라 살 때 그 자신 스스로 인간됨을 느끼고, 매우 도덕적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무시,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신자와 제자를 굳이 구분하여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결국 예수의 제자와 동의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신자와 제자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비종교인들이나 이웃 종교인들이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하고, 교인들을 만나면 우선 방어본능이 작동하여 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둘 사이의 괴리를 깊게 성찰하여 신자에서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해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의 신앙을 성찰한다고 할 때, 그 신앙을 살피는 기준과 자리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역사와 사회,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감싸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생명공동체와 엮여져 있고,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 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삶의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들을 살아내고 있기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한 또는 믿고 있는” 그래서 “이해한 대로 또는 믿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II. 서로 소개와 강좌 소개

# 강의 안내

### • 참석자 서로 소개

- 자기소개와  
강좌에서  
얻고자 하는 것

### • 강의 안내

- 學而思  
(대화와 물음)
- 내용
- 목적

## 기독교, 신자, 그리고 제자의 길

-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 1 강 | 고백하기 전에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은 따름이다!
- 2 강 |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 3 강 | 예수의 하느님과 우리들의 하느님은 같은 분일까?
- 4 강 | 나를 읽는 책! 성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가?
- 5 강 | 구원! 욕망의 집착에서 사랑하는 자유로 비상하기
- 6 강 | 종말론! 희망에 대하여
- 7 강 | 친구들하고는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과 대화
- 8 강 |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 무신론들의 그리스도교 비판을 통해 배우기
- 9 강 | 은총에 응답하는 일상을 꿈꾸며 - 제자의 수행적 삶
- 10강 |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 교회와 하느님 나라

**3.25~6.3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향린교회 2층 어린이부실**

이 강좌는 향린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선교센터 길목 협동조합을 세우고 1년만에 시도 하는 신학강좌라 저 자신도 조금 떨립니다. 여러분은 강좌를 알리는 포스터를 보시면서 “여기 오면 무언가 배우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겠지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배워 정보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 세분이나 오셨으니, 너무 길지 않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이 강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개를 마치면 저 또한 제 소개와 함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하고, 첫 강좌인 믿음의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눠 보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 강좌를 통해 정말 나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찌다 보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영원불변의 진리처럼 고정되어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면 좋겠지만, 복음의 소식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늘 재해석되어야 하고, 그런 해석과 수용의 과정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기에 저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이 강좌는 10개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고백의 내용에 따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들을 주제화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기획한 10강좌에는 그런 전통적인 주제들을 포함하여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것 몇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더 다뤄야 할 것들이 생기면 앞으로 길목에서 하는 신학강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 열가지 주제는 그 각각의 주제에 따라 더욱 세부적으로 또 10강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강 고백하기 전에 의심하라. 그리고 믿음은 따름이다!”에서는 믿음과 관련된 우리들의 언어와 행위를 성찰하면서 믿음 자체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통전적 성격과 관계의 측면을 주목하여 예수에게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할 수 없기에 2강은 예수에 관한 것이 됩니다.

“2강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에서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함께 살핌으로써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예수에게 주어진 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 고백하는 여러 상징어들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신자와 제자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강 예수의 하느님과 우리들의 하느님은 같은 분일까?”에서는 신학은 결국 인간학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그러나 예수의 하느님을 통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하느님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느님과의 만남을 희

망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4강 나를 읽는 책! 성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가?”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1원천은 성서일 수밖에 없다는 명징한 사실에 기초하여, 성서를 읽는 다양한 해석방법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예수님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쓰인 성서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강 구원! 욕망의 집착에서 사랑하는 자유로 비상하기”에서는 구원에 대해 마음을 다 터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교회와 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대중적 구원관 즉 대속이라든가, 천국과 지옥의 틀과 같은 것들이 갖는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오늘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의 의미를 화해와 사랑, 그리고 자유에 집중하여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6강 종말론! - 희망에 대하여”는 성서의 사후예언적 기술방식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종말론들에 대해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적 시간 이해와 더불어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종말론적 희망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강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과 대화”에서는 이미 다원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타종교인과의 대화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이웃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종교간 대화의 허구성을 밝히고 종교인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불교와 유교의 대표인물인 붓다와 공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강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무신론들의 그리스도교 비판을 통해 배우기”에서는 포이에르 바하, 프로이트, 맑스, 니체, 과학적 무신론(리처드 도킨스, 에드워드 윌슨 등)의 기독교 비판을 살피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이전의 그리스도교의 실수를 배우고 현 그리스도교와 미래의 그리스도교가 나아갈 길들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강 은총에 응답하는 일상을 꿈꾸며 - 제자의 수행적 삶”은 영성적 삶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의 특징과 수행법을 소개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맞부딪히는 현대사회의 제반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면 좋은 지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10강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 교회와 하느님 나라!”에서는 교회의 탄생과 역할, 의미 등을 살피고, 하느님의 정의가 이뤄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 고찰해 볼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느님 나라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데, 현실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하느님 나라의 이상과 교회의 현실간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갈 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10강을 마치고 나면 기독교 신앙 내용의 대강을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 경험을 진하게 하시려면 먼저 스스로 묻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 <역사와 해석>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묻지 않는 자에게 성서는 답을 해주지 않고, 자신의 실존에서 우려나와 고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움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제 자신의 삶과 고민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저 누군가 알려주는 정보는 대부분 유실되거나 잘난 체하는데 이용되기 쉽습니다. 자신의 성숙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정보는 또한 쉽게 남을 이용해 먹거나 지배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과 만남이 남을 지배하는 데, 또는 잘난 체를 하는데 쓰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니 배움만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좌의 이쁨이 역할

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강의도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묻고, 또 대화하면서 배움과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강좌가 지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성찰입니다. 혼자 성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여럿이 더듬어 보자는 것이지요. 함께 더듬어 보는 가운데 다듬어 지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강좌 내내 여러분은 생각하고 묻고 대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강의 안내를 마치고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 III. 신앙의 성숙을 지향하며~

## <Stages of Faith> – James Fowler

- 0 : undifferentiated faith
- 1<sup>st</sup> : intuitive-projective faith
- 2<sup>nd</sup>: mythic-literal faith
- 3<sup>rd</sup> : synthetic-conventional faith
- 4<sup>th</sup> : individual-reflective faith
- 5<sup>th</sup> : conjunctive faith
- 6<sup>th</sup> : universalizing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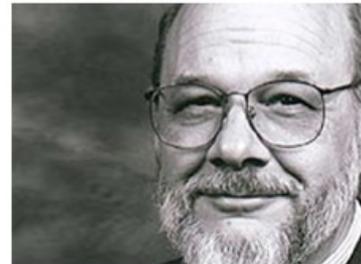


그림 출처, <http://www.mormonstoriesgermany.org/2013/03/10/uber-james-fowler-stufen-des-glaubens-3/>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Stages of Faith>(신앙의 발달단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발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단순화 시켜 말해 보면,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들 수 있는데, 이 분은 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여러 이론을 바탕<sup>1)</sup>으로 신앙의 발

1) 제임스 파울러는, 모든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이 있고, 이 궁극적 관심을 위해 삶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폴 틸리히(Paul Tillich), 신앙은 특정한 신념들이 규정지어 놓은 초월자에 대한 신뢰와 충성의 관계라고 본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사회, 시간과 역사, 절대적 의존, 죄와 구원과 관련하여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정의하는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보편적인 것, 관계적인 것, 상상력, 동사적인 것 등으로 파악하였고, 장 삐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감각운동기-전 조작기[상상력, 직관]-구체적 조작기[논리적, 인과관계, 보존개념 등]-형식적 조작기

달 단계를 나누고 일정한 신앙교육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책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시고요. 여기서는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의 단계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어느 단계쯤 와 있을지 생각해 보지요.

우선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이루고 있는 7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면담과 설문을 실시합니다. 7가지 요소는 논리의 형태(Form of Logic),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 도덕적 판단의 형태(Form of Moral Judgement), 사회의식의 테두리(Bounds of Social Awareness), 권위의 장소(Locus of Authority), 세계관의 형태(Form of World Coherence),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입니다. 이 요소를 기준으로 6단계를 나눠 보면, 우선 6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0단계인 미분화된 신앙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무의식의 세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후의 신앙발달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서 발전된 상호성의 질, 신뢰, 자율성, 희망과 용기(또는 이와 상반되는 것들)는 후에 신앙발달에서 오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또는 모든 것을 침해하려는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볼 때 에릭슨의 1단계를 수용했지요. 1단계인 직관적-투사적 신앙의 단계는 3-7세의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단계로, 논리적 사고 불가, 상상력 사용, 환상과 현실 구분 못하는 경향, 자기 중심적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2단계는 신화적 문자적 단계로 7, 8세에서 11, 12세 어린이에게 보입니다. 인과관계에 따른 논리구조가 가능하고, 신인동형론적으로 설화의 주인공들을 파악하며, 설화의 표면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3단계인 종합적-인습적 단계는 사춘기 청소년에게 보이는 단계로, 개인의 경험이 가족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견해들을 받아 들이게 되지만, 객관적으로 성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파울러는 순응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4단계인 개별적-성찰적 신앙단계는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의미의 틀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순응주의를 넘는 것이지만 자기의 성찰 때문에 오히려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단계는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4단계가 보편적인 것을 자신의 것인양 아전인수식으로 생각했다면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을 다시 자신의 것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만의 신앙에서 성숙하고 포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진리에 대한 역설도 받아 들이면서 발생하는 자족감이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보편적 신앙의 단계로 자신들의 느낌과 인식이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단계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파울러가 볼 때 6단계에 드는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나 간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정도라고 했지요.

파울러의 이론은 오늘날 세부적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성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과, 신앙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앙발달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함을 역설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단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국의 중대형 교회의 교인들은 아마도 3단계 정도에 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했을 때,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 보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살펴 볼까요?

---

[추상적 사],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인습전[순종-벌, 자기중심적]-인습적[착한 소년소녀 지향, 권위와 사회질서 순응]-인습이후[사회 계약 지향, 양심 지향]),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인격 8단계설(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친밀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정체감, 통합 대 절망) 등을 종합하여 신앙발달의 단계를 설정한다.

#### IV. “만약 믿음이 착각이라면~”, 고백 전에 의심이 필요한 이유!!

### 믿음 =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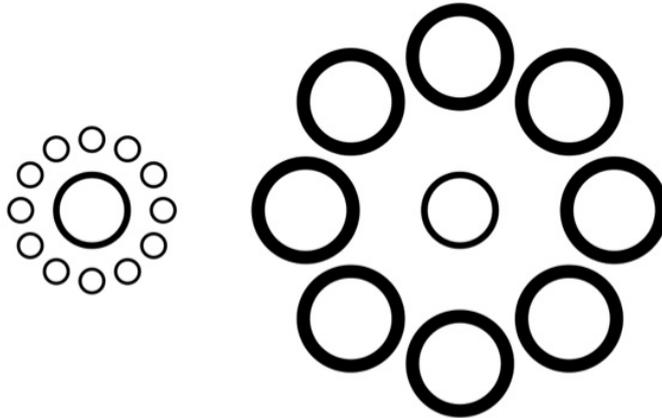


그림 출처, www.ritsumei.ac.jp

이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작은 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원과 큰 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원 중 어느 것이 커 보이나요? 이런 것 많이 해 보셨지요? 사실 두 원은 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 한 쪽이 크고 한 쪽은 작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지요?

### 믿음 =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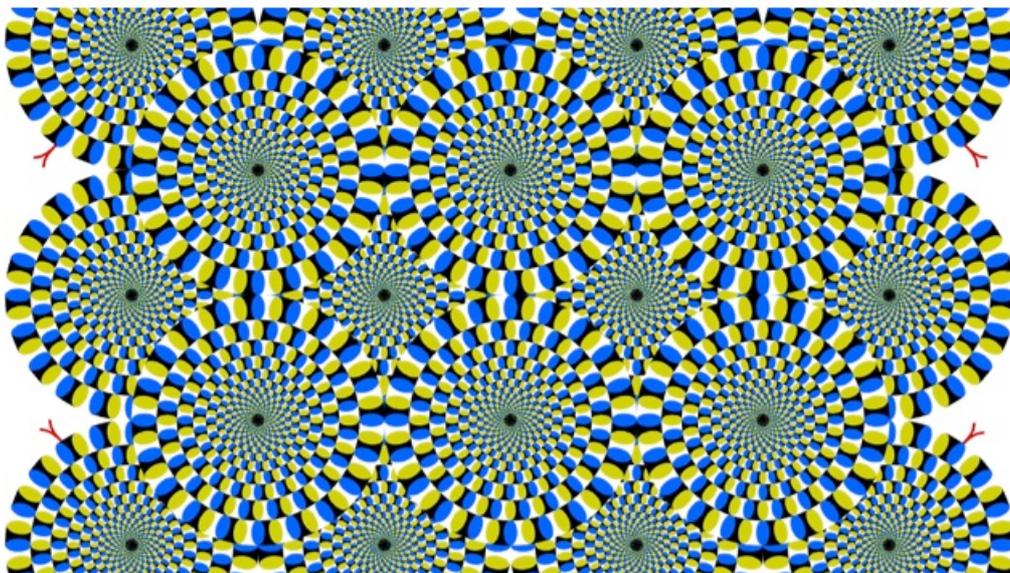


그림 출처, www.ritsumei.ac.jp

이 그림은 그저 평면에 있는 그림일 뿐인데 점들을 중심으로 마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림조차도 사실과 다른 착각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교회나 기독교에서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 그래서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확실한 것을 믿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착각에 근거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착각이나 광신에서 비롯된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고백하기 전에 의심하라!

종교적인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만큼 신학에서나 대중에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정의내리기 애매한 말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용어이다. 오늘날 믿음은 건강하게 하기보다 병을 만들어내는 용어가 되었다.

“모든 심각한 의심과 진리에 대한 실망 속에는 아직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당신의 불안을 너무 빨리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유혹자가 당신의 교회이든 당신이 속한 당파이든 아니면 당신의 부모 때부터의 전통이든 간에, 정말 당신 자신의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모든 심각함으로 (진지한 회의주의자인) 빌라도와 함께 가십시오.”

그림 출처, <http://www.lightnlife.or.kr>

“종교적인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만큼 신학에서나 대중에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정의내리기 애매한 말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용어이다. 오늘날 믿음은 건강하게 하기보다 병을 만들어내는 용어가 되었다.” (믿음의 역동성)

그래서 이 신학자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심각한 의심과 진리에 대한 실망 속에는 아직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에 대한 당신의 불안을 너무 빨리 해소하려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유혹자가 당신의 교회이든 당신이 속한 당파이든 아니면 당신의 부모 때부터의 전통이든 간에, 정말 당신 자신의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모든 심각함으로 (진지한 회의주의자인) 빌라도와 함께 가십시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번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고 고백해 오던 것을 전적으로 의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니 예수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동안 묻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었기에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믿는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그저 믿음의 확실성만을 반복적으로 확신해 왔으므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불합리적이고, 고집 센 사람, 딱 막힌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비종교인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왜 나가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V. 하나님을 믿는가? 내 믿음을 믿는가? 믿음의 대상이 뒤바뀌는 현상!

## 무엇을 믿는가?

-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성서가 가리키는)
- 내가 믿는(만난) 하느님(성서 이야기)
-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느님(내맘대로)
  
- 믿음의 역전 현상 - 하느님(神)에서 나의 믿음(信)으로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다른 이웃 종교들과 비교해서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 하느님은 아마 모두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만약에 동시에 두 사람이 다른 요청의 기도를 한다면, 우산 파는 사람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양산 파는 사람이 해가 쨍쨍하기를 기도한다면 하느님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있는 그대로의 한 분 그 하느님이라면 기도의 내용도 같고, 기도의 응답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만난, 또는 내가 믿는 하느님일까요?

이 물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자신이 믿는 하느님이라는 것이지요. 즉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의 모양을 통해 하늘을 보듯이, 유한한 인간의 인식에 의해 파악된 하느님, 인간에 의해 묘사된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만난 하나님의 그림이 서로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가 만나 믿게 된 그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은 아니겠구나를 깨달았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느님이 내 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하느님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느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하느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까? 아마도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느님을 믿는 과정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데 일이 더 꼬이고 힘들었다면 하느님을 믿을 수 없었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신앙인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이것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원래는 하느님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보자면 현재의 고난이나 문제로부터 해결받으려는 안정욕구, 또는 권력을 잡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나의 믿음(信)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라 부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였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실히 믿으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거짓을 저질렀고, 또 그러한 사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욕망에 물든 내 신념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세, 미리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예수, 마리아 기타 등등 하느님과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만난 하느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하느님 만남 이야기가 나를 지지할 수도 있고 나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국 내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붙들고 있던 하느님을 놓아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이 나를 찾아 오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백하기 전에 의심한 우리들이 진정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오시는 하느님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담담하게 또 한편으로 담대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어떤 믿음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VI. 믿음이란 무엇인가?

# 믿음이란 무엇인가?

-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 종략 ~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 뿐 아니라 행동에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명확했다.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해져도 쌀 정도로 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느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마커스 보그 15.)
- 믿음이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교리에 대한 사실적 인정인가?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이 최근에 하나 번역되었는데, 거기에서 마커스 보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졌는데 12살이 된 자신에게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 뿐 아니라 행동에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명확했다.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질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처해져도 쌀 정도로 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느님이 예수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당에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12살 먹은 그리스도인 어린이가 설명해 주는 기독교 이해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명제, “인간은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지옥은 영원하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 당한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등등을 믿으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각각의 명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해 볼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아무튼 이 명제의 진위를 가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믿는다고 말하든, 믿지 않는다고 말하든 간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할 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나 성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와 비교하여 믿음은 성서의 내용이나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서에는 전혀 오류가 없고, 문자 그대로 영감으로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이런 기적은 문자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이전에 “믿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쓰였고, “내가 너를 믿는다” 즉 신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바로 전 인격과 관계된 것이며, 정신의 3요소인 지성과 감정, 의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신뢰, 그리고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통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지요?

## 정신의 3요소와 믿음의 유형

- 정신의 3요소 : 知, 情, 意
- 정신의 3요소와 믿음의 유형, 그리고 왜곡

정신요소	신앙유형	초점	왜곡	파행
지성	동의	성경, 교리	성경주의, 교리주의	교만
감정	신뢰	열광, 부흥	열광주의, 부흥주의	착각
의지	충실	도덕, 행동	도덕주의, 행동주의	독선

표 출처. 정재현 미발표 원고,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잡게 하기 보다 어느 한 쪽으로 쏠리기 쉽습니다.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잘 아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인식하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아야 뭔가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이 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다음과 같은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각각 성경주의, 열광주의, 도덕주의로 흐르고 그것이 심해지면 교만과 착각 그래서 광신, 독선에 이르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특히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기에, 믿음이라는 자체의 성격에 의해 교만과 광신, 독선은 쉽게 고쳐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 믿음은 따름이다!



“결국,  
 믿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키에르케고르>

그림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파일:Kierkegaard.jpg>

그리스도교적 실존주의의 대표자인 키에르케고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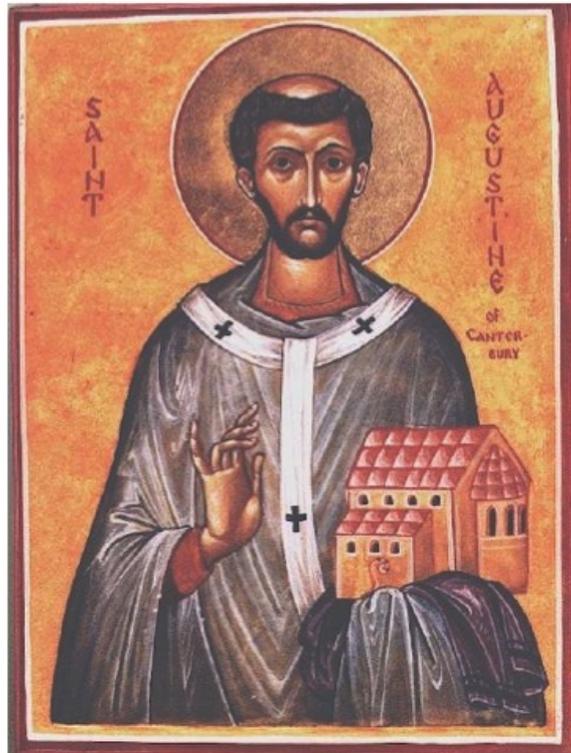
사랑에 빠지려면 우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지요. 즉 사랑은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온 몸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전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안에 계시된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앎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믿음과 앎

-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 터툴리아누스
- 믿기 위하여 이해하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  
- 아우구스티누스

그림 출처,  
<http://blog.daum.net/simjy/11984278>



초기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누스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앎과 믿음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이란 내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모르지만 믿을 때, “나는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서 앎보다는 모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믿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믿기 위해서는 앎도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됴됨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또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면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은 앎과도 또 모름과도 연결되어 있는 매우 역설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믿는 것이면서도 알기 때문에 믿고, 또 한편 믿기 때문에 앎이 증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믿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특히 서로 사랑해서 사귄 때 보면 조금씩 알아가며 신뢰가 싹트고 그 신뢰 속에서 많이 증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그와 같은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 드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측면 하나를 살피고 마칠까 합니다.

## History and My Story



이 그림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토끼요? 오리요? 어떤 사람은 오리-토끼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아직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습시다. 만약 이 그림 주변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 그림과 비슷한 토끼들이 뛰어 다니면 이 그림은 토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 주변에 호수가 있고, 호수 위에는 오리가 떠 다니고, 이 그림 또한 그 오리 옆에 놓여 있다면 이 그림은 오리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의 의미가 이 그림 자체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 예수에게서 하느님이 드러나셨다는 신앙고백적 언어를 신앙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믿음은 다양한 삶의 경험, 그리스도교 전통, 성서 이야기, 함께 믿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자기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룰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역사의 줄기가 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개인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의미를 드러내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전통이라는 역사,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하느님 만난 이야기들의 집합체인 성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 그 안에서 결단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 행동과 관련된 그 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를 삶의 자리라 불렀던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작은 신앙의 삶의 단위들이 모여 큰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공유하게 되었던 신앙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 신앙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을 믿음
-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느님, 즉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 듣는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는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데 대하여 “네”하고 책임있게 답함으로써 이 뜻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이 뜻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 기독교 신앙

-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은 수용(받아들임)이 행위(나의 의지적 행동)에 앞선다는 태도의 선택이다. 그렇다 해서 내 의지적 행위가 격하되거나 무용하게 여겨지는 않는다.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고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파악되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그것보다 더 참되다는 태도를 취하는 일이다. 우리의 바탕이 되어 주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힘을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은 본격적 현실로 여기고 보이는 세계보다 더 나음을 믿는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는 보이는 이 세계에 굴복하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더 나은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은 욕망에 뿌리를 둔 안정욕구에서 하느님께 뿌리를 둔 자유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 땅에 살았던 한 젊은이의 삶과 죽음 속에서 세계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스도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준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

## 참고문헌

- 테리 이글턴, <신을 옹호하다>, 모멘토, 2010.  
 이찬수, <믿는다는 것>, 너머학교, 2011.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글항아리, 2012.  
 마커스 보그, <기독교의 심장>,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마커스 보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비아, 2013.  
 정재현,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한울, 2006.  
 정재현, <묻지마 ‘믿음’ 그리고 물음>, 동연, 출간예정  
 폴 킬리히, <믿음의 역동성>, 그루터기하우스, 2005.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분도출판사, 2007.  
 길희성, <하나님을 놓아주자>, 도서출판 새길, 2009.  
 양명수, <한국교회, 인문주의에서 배운다>, kmc, 2014.